

## 工業所有權과 輸出

### 技術 新·特許外交 並行 推進 強行해야

編輯室

世界的으로 工業所有權의 問題는 한 나라 經濟의 技術趨勢와 그 水準을 가름하는 尺度로서 國家 産業發展의 重要한 課題가 되어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라 하겠다.

이러한 現狀은 工權所有權을 核心으로 先進技術을 吸收發展시켜 國力과 經濟力을 培養해온 先進 工業國의 例를 들지 않더라도 國家의 存立과 成長에 있어서 工業所有權이 갖는 意味는 그 어느것에 比較될 수 없을리 만큼 크나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날의 後進과 停滯의 굴레를 말끔히 떨쳐버리고 開發途上國의 先頭走者로서 先進祖國의 創造를 向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重大한 時點에 直面하고 있는 만큼 全世界의 輸出市場化, 商品의 高級化 내지 外貨稼得率의 提高, 新技術活用을 통한 새 商品의 原價節減에 研究와 努力을 더 한층 傾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當爲性에도 不拘하고 國際的인 景氣豫測이 아직도 不透明한 데다 對內的으로는 資本不足과 技術蓄積이 未備한 狀態에 있고, 더우기 世界 여러 나라들은 自國의 景氣浮揚과 保護主義에 따른 輸入規制를 依然히 強化하고 있어 長期的으로 우리나라 企業이 이에 國際競爭力을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인지 現時點에서 볼 때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하겠다.

오늘의 世界的인 技術動向은 工業所有權을 中心으로 先·後進國 사이에 技術交易이 활발히 이루어져 비싼 技術代價를 받고 輸出되는 技術은 意匠 및 商標와 함께 後進國 市場을 席捲하는 底力을 誇示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國際趨勢에 對應해 나가는 길은 오직 工業所有權을 바탕으로 技術革新에 力點을 둠으로써 新技術·新製品을 開發하여 海外市場을 파고드는 길 뿐일 것이다.

또 이와 並行하여 政府에서는 交易國에 對하여 輸出伸張을 위한 多角的인 特許外交活動을 展開시켜 輸出商品의 特許·意匠·商標를 權利化하여 輸出市場에서의 特許紛爭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도록 企業과 有機的으로 協調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輸出商品이 特許權의 抵觸으로 輸出에 支障을 가졌은 實例가 많지않은 것은 輸出商品들의 特許權이 이미 消滅되었거나 海外市場을 獨占·攪亂시킬 만큼 質·量面에서 浮上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輸出市場이 더욱 擴大되고 輸出商品이 新技術을 뒷받침한 高級化가 이루어졌을 경우 工業所有權紛爭이 언제 어느곳에서 激化될 것인지는 豫想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 業界에서도 하루 빨리 先進工業國에서와 같이 企業의 發明이 特許化되면 自國에 出願할 뿐만 아니라 輸出對象國에도 出願하여 權利化해 둠으로써 紛爭의 불씨를 事前에 防止해 나가는 風土를 造成해야 겠다. ☞